

재일(在日) 조선학교 국어 교과서 특성 연구

- 6차 개편(2003년) 중급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한근* · 시오야 모에** · 유인박***

차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및 조선학교 교과서 변천사
3. 교과서 구성 및 특징
4.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재일동포 대상의 조선어교육 교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학교에서 사용 중인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간 조선학교 교과서가 시기를 거듭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변천해 왔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6차 개편 당시 출판된 2003년, 2004년 조선중급학교 국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외형과 내용의 측면에서 특징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차 개편 당시에 강조하였던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구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민족성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이를 고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록하여 민족성을 함양시켜 재일동포로서 한민족(Korean)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총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상당 부분 줄어들이는 하였으나 북한 최고지도자를 찬양하거나 주체사상과 관련된 내용을 여전히 수록하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시민협력전공 강사(제1저자)

** 릿쿄대학교 全學共通科目言語B 강사(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시민협력전공 강사(공동저자)

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조선학교, 교과서, 재일동포, 한국어교육, 총련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북한의 재일동포 대상의 조선어교육 교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민족어교육은 역사적으로 남한계 한국학교와 북한계 조선학교, 일본 학교의 민족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언어교육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발전한 데에는 해방 이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간략히 살펴보자면 해방 이후 1945년 좌우합작 재일 조선인 단체인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이 결성되었으나 신탁통치와 같은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우익 계열은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건청), 신조선건설동맹(건동)을 거쳐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현재 민단)이 생겨났다. 한편 남아 있던 좌익 계열인 조련 역시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을 거쳐 1955년 총련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일동포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국어강습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조선인학교폐쇄령’으로 대부분의 민족학교가 폐쇄되었고 이로 인하여 민족교육의 창구가 사라지게 되었다.¹⁾ 그러나 그중에서 조선학교는 1955년 총련의 결성과 1959년 북한에서의 ‘북송사업(귀국사업)’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이로

1) 당시에는 ‘한국학교’, ‘조선학교’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문화와 언어, 역사를 배우는 취지로 ‘민족학교’라 칭하였다. 또한 현재 조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족교육’은 ‘정체성(또는 한민족) 교육’과 내용 및 형식 면에서 동일한 위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민족교육’은 조선학교에서 실시되는 민족교육만을 의미한다.

인하여 조선학교는 북한의 해외공관에 해당하는 총련의 산하기관으로 현재까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반부터 초급학교, 중급학교, 고급학교, 1956년에 설립된 조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독자적인 교과서를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다.

결국 조선학교는 일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조선어를 가르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민족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아왔다.²⁾ 2010년 4월에는 일본의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는 수업료 무상화 대상이 되었으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무상화 대상 심사가 보류된 이후 2013년 2월 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³⁾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선학교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부모, 학생들까지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운동을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⁴⁾

역사적으로 북일 관계 악화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결과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 정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과 총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는 단순히 북한학교로 인식이 되고 차별을 받아 왔으나 점차 교실에 비치되어 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제거한다든지 교육 내용에서 우상화교육 또는 사상교육과 같은 내용은 사라지면서 정치적 색깔은 많이 사

2) 1948년~1949년 ‘한신교육투쟁’으로 인한 조선학교 폐쇄사건이 있으며 1960년대~70년대에는 ‘외국인학교법안’에 따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동화정책을 시도하였다.

3) 최근에는 COVID-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국민 학생들에게 일본 정부가 ‘學生支援緊急給付金(학생지원긴급급부금)’ 제도로 20만엔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나 조선대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내(한국)에서는 2023년 3월 22일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감독 김지운)>을 개봉하였다.

라졌다. 실제 조선학교는 각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준학교법인 ‘조선학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권 역시 조선학원 이사회에 있다. 교육과정 개편 역시 현장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조선학교를 단순히 ‘북한-총련-조선학교’로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과서 개발에서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진행된 5차 개편에서는 교재 개발 주체에서부터 재일동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색깔은 사라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실제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은 우리의 인식과 달리 ‘민족교육’의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언어와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밝혀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학교의 성격과 사용 중인 교재(materials)는 남한의 한국어 교재, 북한의 조선어 교재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이처럼 조선학교의 역사는 한반도 격동의 역사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 까지도 ‘민족교육’의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문화 계승과 번안, 귀국과 정주 등과 같은 다양하고 풍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은 재일동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북한의 ‘계승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의 관점에서도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선결 작업이라 할 수 있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차 개편 당시 출판된 2003년,

5) 이와 같은 견해는 송재목(2011), 송재목(2012)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며 한국어교육 단체 중 현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해 온 유일한 교육단체로 소개하고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으로 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 ‘계승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이라는 개념과 용어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나 북한에서도 중국,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조선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학습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한하여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2004년 조선중급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외형과 내형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⁷⁾

2. 선행 연구 및 조선학교 교과서 변천사

1) 선행 연구 분석

그간 일본의 재일동포와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에서 재일동포들의 언어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거나 민단계 한국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정희, 2004; 이순연, 2017; 김세덕, 2019; 오새내·최창원, 2019; 이 동준·장미라, 2019 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정병호, 2003; 정진성, 2017; 송기찬, 2018; ITO HIROKO, 2018; 윤송아, 2019 등)에도 민족 정체성, 민족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을 뿐 실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와 일본을 합치더라도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조선학교에서 사용 중인 국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송재목(2011)과 송재목(2012)가 있는데 송재목(2011)은 조선초등학교 2003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1993년 국어 교과서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송재목(2012)는 조선학교의 국어 교과 내용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3년과 2003년 조선고급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조선고급학교와 조선초급학교의 6차 개편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 조선중급학교의 국어 교과서 대상으로 한 연구

7)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는 『국어 중급1』, 『국어 중급2』, 『국어 중급3』이며 각각 2011년, 2013년, 2013년에 재판 발행되었다. 다만 초판은 각각 2003년, 2004년, 2004년에 발행되었으나 재판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재판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각 교과서들은 조선학교를 졸업한 학습자들에게 제공받았다.

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⁸⁾

이처럼 총련에서 개발한 교과서 관련 연구가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에 서조차 미비한 것은 무엇보다 아직까지 조선학교를 북한학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오는 보수적인 접근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조선학교 교과서는 북한의 교과서와 유사하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간 재일조선인의 조선어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재목(2011)과 송재목(2012)와 같은 연구가 통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데에는 주목할 만하다.

2) 조선학교 교과서 변천사

조선학교에서 사용 중인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선학교 국어 교과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되었는지 변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간략하게 밝힌 바와 같이 조선학교 교과서는 총련 결성 이후 2006년까지 10년 단위로 6차례에 걸쳐 개편이 되었으며 총련의 산하 기관인 ‘학우서방’에서 발행하고 있다. 개편 시기는 1차 개편(1955년~1957년), 2차 개편(1963년~1964년), 3차 개편(1974년~1977년), 4차 개편(1983년~1985년), 5차 개편(1993년~1995년), 6차 개편(2003년~2006년)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교과서 개편 내용은 1차 개편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북한으로의 귀국을 전제로 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차 개편 시기에는 민족성을 키우기 위하여 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문법 교육을 강화하였다. 2차 개편 시기에는 북한의 교과서 및

8) 6차 개편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2023년에는 6차 개편 이후 7차~8차 개편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자료를 대량으로 입수 및 참고하여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내세우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시기부터 전국 조선학교에서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차 개편 시기에는 2차 개편 시기와 동일하게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내세우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으나 그 특징이 가장 짙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즉 3차 개편 시기는 1974년~1977년에 해당하여 주체사상이 확고하게 자리잡아 순수한 이데올로기로 발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도 주체사상 및 북한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국어 교과서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일본어나 영어 교과서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를 폭넓게 도입하여 ‘김일성주석의 유년기’(초등학교), ‘김일성주석의 혁명활동’(중학교), ‘김일성주석의 혁명역사’(고등학교) 등과 같은 과목들이 도입되었으며, 김일성 교시를 암송하는 것이 국어 및 국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송재목, 2011:10). 이처럼 2차 개편 시기와 3차 개편 시기에는 재일동포들의 귀국을 전제로 하였기에 북한의 교과서를 입수하여 교과서를 개발한 만큼 구성과 내용 측면에서 이를 모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4차 개편 시기에는 귀국을 전제로 이루어졌던 사상교육이 아닌 일본에서의 생활을 반영한 민족어교육으로 교육이 변화하였다. 게다가 ‘민족어교육’의 관점에서 조선어를 익히고 민족적 정서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차 개편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는데 교과서 개발에서 구상부터 집필까지 모두 재일동포 교육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교과서에는 일본어교육 및 일본 역사교육의 분량이 증가하였으며 일본 학교의 교육 내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재일동포 교육자에 의해 교과서가 개발된 만큼 주체사상 및 북한 최고지도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⁹⁾ 무엇보다 4차 개편에서는 ‘사상교육’에서 ‘민족어교육’으로 전환하며 일본 현지 상황에

따라 재일동포 자녀의 생활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서의 정주를 가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5차 개편 시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실제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을 교과서에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6차 개편 시기에는 초, 중, 고급 수업 내용의 40%까지 구어교육에 할애하는 등 구어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교과서 개편은 총련 결성 이후 10년 단위로 6차례 이루어졌으며 현재 2024년까지 추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표 1〉 조선학교 교과서 개편 내용(송재목, 2011:14)

개편	내용 및 목표
1차 (1955~1957)	사회주의조국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국어교육과 애국주의를 강화
2차 (1963~1964)	공화국의 해외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전면에, 공화국의 교과서와 자료를 대량으로 입수 및 참고로 하여 교과서 개편
3차 (1974~1977)	조선과 연대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동포 자녀들의 실정을 한층 고려, 총련애국사업의 패턴을 둔 교과서 개편
4차 (1983~1985)	민족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사회와 일본어교육을 강화
5차 (1993~1995)	21세기를 전망하여 조선학교 아동·생도의 보호자들의 필요성에 맞춘 내용으로 개편. 국제화, 정보화시대의 재일동포상을 염두에 두고 122점에 달하는 교과서를 일신
6차 (2003~2006)	민족성을 갖추고 21세기 동포사회를 계승,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인재, 북남조선과 일본, 국제사회에서 특색 있는 활약을 할 수 있는 높은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교과서 개편

9) 일본 정부에서 다문화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 보고서『多文化共生の推進に關する研究會報告書』를 발간한 것으로 보아 향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교과서 구성 및 특징

1) 교과서 구성 및 단원 구성

세 교과서 모두 단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컬러로 각각 144쪽, 198쪽, 158쪽으로 제작되었다. 별도의 교사용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워크북 형태의 부교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는 만큼 오디오, 비디오 자료는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온라인 교과서의 경우 ‘우리’라는 명칭으로 교과서 열람기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우서방의 승인과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성명과 소속, 학교 대표 메일 주소, ID,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만 하기에 외부인이 활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¹⁰⁾



〈그림 1〉 조선학교 온라인 교과서 열람기 일부

조선학교 교과서는 북한 해외공관에 해당하는 총련 산하 기관인 학우

10) 조선학교 온라인 교과서 열람기의 존재 여부는 김한근(2023)에서 밝힌 바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도 외부인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폐쇄성을 언급하였다.

서방에서 출판하고 있는 만큼 언어규범은 아래 예시 (1)~(6)과 같이 북한의 문화어 규범을 따르고 있다. 즉 의존명사, 단위명사, 보조용언은 붙여서 쓰며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형태소 및 어휘, 외래어 표기 역시 문화어 규범에 따라 표기를 하고 있다. 예시 (7),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한의 교과서와 달리 한자를 함께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일본에서 거주하며 생활해야 하는 재일동포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래 (8)과 같이 일본 현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숙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화어 규범을 따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¹¹⁾

- (1) 괴롭힐것 같아 겁났던거요.(중급3:31)
- (2) 국보1호(중급2:19), 한가지(중급2:79)
- (3) 가보고싶다(중급2:23)
- (4) 언어레절(중급1:15), 런휴기간(중급2:83), 력사(중급3:42)
- (5) 뒤더수기(*뒋덜미)(중급1:74), 봄씨불임(*춘기 파중)(중급2:41), 주밋거리다(*주뽕거리다)(중급3:43)
- (6) 빠스(중급1:59), 팜프레트(중급2:35), 페지(중급3:44)
- (7) 運轉士(중급1:5), 編集(중급2:35), 保存(중급3:59)
- (8) 姿態(자태), 祖上(조상)

그 다음으로 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세 권 모두 ‘본문-단어(주석)-활동(런습문제)’로 되어 있으며 부록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중급 1’과 ‘중급 3’은 17개 단원, ‘중급 2’는 1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교과서 모두 단원 중간마다 ‘삽입교재’를 별도로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필

11) 일본에서는 ‘자태’라는 어휘는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표기 역시 ‘姿態’가 아닌 ‘姿勢’, ‘態度’로 표기한다. ‘조상’ 역시 ‘祖上’이 아닌 ‘先祖’로 표기한다.

요한 문법 지식을 비롯한 기타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급 1’에서는 ‘삼입교재’로 1단원 후 ‘입말과 입말체’, 5단원 후 ‘체언과 토’, 8단원 후 ‘직유법’, 17단원 후 ‘단어의 바로읽기’를 수록하고 있다. ‘중급 2’에서는 2단원 후 ‘토없이 쓰이는 단어’, 7단원 후 ‘은유법’, 9단원 후 ‘용언과 토’, 15단원 후 ‘억양의 요소’를 수록하고 있으며 ‘중급 3’에서는 2단원 후 ‘환유법’, 11단원 후 ‘단어의 갈래’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단원에 따라 ‘참고지식’을 별도로 수록하여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어휘는 각주로 본문 아래 뜻풀이와 함께 제시하고 본문 이후에도 ‘주석’ 항목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삼입교재’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 색인 역시 어휘와 문법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중급학교 교과서에서 문학 작품을 수록한 단원을 제외한 단원의 주제를 보았을 때 ‘소개하기’, ‘토의하기’, ‘보고하기’와 같은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초급학교, 고급학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며 결과적으로 초급학교 교과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급학교 교과서는 기능 중심, 고급학교 교과서는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목표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표 2〉 단원 구성

중급1		중급 2	중급 3
단원	단원명		
1	중학생이 된 기쁨	온달과 평강공주	진달래꽃
	(삼입교재) 입말과 입말체		
2	소개하기	민족의 자랑이 깃든 곳에서	단군신화

12) 송재목(2012)는 초급학교 교과서의 경우 생활 주변의 장면을 다루는 스토리가 있는 기초적인 회화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고 고급학교 교과서는 연령에 맞는 장면의 전개로 말하기, 듣기 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삽입교제)토없이 쓰이는 단어	(삽입교제) 환유법
		(참고지식) 기행글	(참고지식) 신화
3	동요 2편	팝프레트를 만들어보자	고향의 모습
4	여러 가지 토막글을 써보자	즐거운 명절 수리날	응변글을 써보자
	(참고지식) 단어의 구조		
5	자랑스러운 우리 말	축하와 위로의 뜻을 나타내는 말하기	현실은 소설보다
	(삽입교제) 체언과 토		
6	전우와 직녀	파란 불	주시경
		(참고지식) 본판말	(참고지식) 전기
7	나의 학교는 조선학교	아직은 사람도 없는 역에	한가위날과 성묘
		(삽입교제) 은유법	
8	가사 2편	느낌글을 써보자	시를 지어보자
	(삽입교제) 직유법		
9	이야기글을 써보자	보금자리	화석에 깃든 옛이야기
		(삽입교제) 용언과 토	
		(참고지식) 소리같은말	
10	분단위원장	토의하기	보고하기
	(참고지식) 성구		
11	전화하기	시조 6수	금강산을 찾아서
			(삽입교제) 단어의 갈래
12	뜨물을 대접받은 원	두 속담군	날이 밝는다
	(참고지식) 속담		
13	설명절	빈견탈출기	물과 생활
	(참고지식) 해설글		
14	동무를 사랑하라	토끼전	박돌의 죽음
	(참고지식) 시	(참고지식) 희곡	(참고지식) '몸'과 관련된 성구
15	안내하기	민족의 슬기가 깃든 우리 글자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삽입교제) 역양의 요소	
16	눈물의 모자	주장하기	설명하기
	(참고지식) 소설		
17	홍부와 놀부	산제비	미래의 나

	(삼입교재) 단어의 바로읽기		
18	편지를 써보자	학급신문을 만들어보자	

2) 내용 구성 방식

중급학교 교과서는 모두 언어 기능 학습을 위하여 본문 및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본문-활동(런습문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런습문제)은 단원별로 최대 3개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원별로 목표하는 기능교육이 상이하며 그에 따라 활동(런습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원마다 다른 유형의 활동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듣기-말하기’ 기능 학습을 위한 단원에서는 본문 내용 확인하여 말하기, 역할극하기, 본인 상황에 적용하기 말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본문 ‘익혀보기’ 항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직접 말하기 활동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보기’와 같은 모범 답안 예시까지 제공하고 있다. 읽기 기능 학습을 위한 단원에서는 본문 이해하기 유형의 활동이 수록되어 있으며 쓰기 기능 학습을 위한 단원에서는 본문에서 제시한 글쓰기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 후 학습자들이 해당 내용과 관련된 쓰기 활동을 직접할 수 있는 런습하기 문항을 수록하고 있다. 다만 ‘듣기-말하기’ 기능 활동과 같이 ‘익혀보기’ 활동은 없으나 모범 답안인 ‘본보기’는 수록하여 학습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삼입교재’에서도 본 단원과 동일하게 활동(런습문제)란을 통해 학습 내용에 맞는 유형의 활동을 수록하고 있으나 단원별로 활동 문항은 언어기능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삼입교재에 수록된 활동은 2개의 활동으로 ‘빈 칸 넣기’, ‘직유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입말체에 어울리게 고치기’와 같이 대부분 표현(말하기, 쓰기)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교과서 단위별 기능교육 항목

단원	기능교육		
	중급1	중급2	중급3
1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읽기
2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3	읽기	쓰기	읽기
4	쓰기	읽기	쓰기
5	읽기	듣기, 말하기	읽기
6	듣기, 말하기	읽기	읽기
7	읽기	읽기	듣기, 말하기
8	읽기	쓰기	쓰기
9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10	읽기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11	듣기, 말하기	읽기	읽기
12	읽기	듣기, 말하기	읽기
13	듣기, 말하기	읽기	듣기, 말하기
14	읽기	듣기, 말하기	읽기
15	듣기, 말하기	읽기	읽기
16	읽기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17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18	쓰기	쓰기	

다음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장르를 살펴보자면 이야기글, 원리글, 동요, 전설, 가사, 소설, 민화, 시조, 기행글, 희곡, 신화, 수필, 전기, 탐험기 등과 같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급 교과서에서는 원리글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편수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고급학교 교과서에는 시, 소설이 가장 많이 수록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중급 교과서에서 원리글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중급학교에서 최대한 익힌 후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¹³⁾ 게다가 ‘중급 1’과 ‘중급 2’에서는 다루고 있는 장르가 한정적인 것에 비해 ‘중급 3’에서는 신화, 수필, 전기, 탐험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유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교과서 수록 본문 장르 유형 및 출현 빈도

장르	교과서	편수	제목
원리글	중급 1	6	소개하기, 여러 가지 토막글을 써보자, 이야기글을 써보자, 전화하기, 안내하기, 편지를 써보자
	중급 2	6	팜프레트를 만들어보자, 축하와 위로의 뜻을 나타내는 말하기, 느낌글을 써보자, 토의하기, 주장하기, 학급신문을 만들어보자
	중급 3	5	웅변글을 써보자, 시를 지어보자, 보고하기, 설명하기, 미래의 나
소설	중급 1	2	분단위원장, 눈물의 모자
	중급 2	2	파란 불, 번갯불출기
	중급 3	2	고향의 모습, 박들의 죽음
시	중급 1	1	동무를 사랑하라
	중급 2	2	아직은 사람도 없는 역에, 산제비
	중급 3	3	진달래꽃, 날이 밝는다, 아이들이 이것이 우리 학교다
해설글	중급 1	2	자랑스러운 우리 말, 설명절
	중급 2	2	즐거운 명절 수리날, 민족의 슬기가 깃든 우리 글자
	중급 3	2	한가위날과 성묘, 물과 생활
이야기글	중급 1	2	중학생이 된 기쁨, 나의 학교는 조선학교
	중급 2	3	온달과 평강공주, 보급자리, 두 속담군
가사	중급 1	2	우리는 하나, 반달
기행글	중급 2	1	민족의 자랑이 깃든 곳에서
	중급 3	1	금강산을 찾아서
전설	중급 1	1	견우와 직녀
동요	중급 1	1	봄아가씨는요, 두만강을건너며
민화	중급 1	1	뜨물을 대접받은 원
시조	중급 2	1	시조 6수
방송극	중급 1	1	홍부와 놀부

13) 송재목(2012)은 2003년도에 고급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수록된 작품 장르 중에서는 시와 소설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희곡	중급 2	1	토끼전
신화	중급 3	1	단군신화
수필	중급 3	1	현실은 소설보다
전기	중급 3	1	주시경
탐험기	중급 3	1	화석에 깃든 옛이야기

부록에서는 ‘한자일람표’, ‘조선지도’, ‘덧붙이일람표’, ‘교정부호’, ‘원고 지쓰는 방법’을 수록하여 학습자들의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자일람표’는 각 단원의 주요 어휘들을 한자로 표기하여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지도’를 통해서는 학습자들에게 재일동포로서의 일반적인 상식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부록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의 조선어 교과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선학교 교과서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강남옥(2014), 김한근(2022), 김한근(2023)에서는 외국인 대상의 조선어 교과서를 살펴보았고 김한근 외(2023)에서는 재외동포 대상의 조선어 교과서를 살펴보았으나 한자교육을 위한 자료, 언어규범을 익힐 수 있는 ‘교정부호’, ‘원고지쓰는 방법’, ‘조선지도’와 같은 부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표 5〉 교과서별 부록 수록 내용

중급 1	중급 2	중급 3
한자일람표	한자일람표	한자일람표
조선지도	조선지도	조선지도
덧붙이일람표	문장부호법	표현수법일람표
교정부호		
원고지쓰는 방법		

3) 교과서 특징

(1) 입말과 입말체, 글말과 글말체의 구분

6차 개편으로 개발된 중급학교 국어 교과서는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입말과 입말체, 글말과 글말체를 구분하여 교육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학교 교과서 5차 개편, 6차 개편에서 모두 강조하였던 듣기와 말하기와 같은 구어 교육을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여 이를 중심으로 조선어(국어)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선학교 교과서가 구어와 문어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총련에서 조선학교 교과서를 출판한다는 점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교과서 개편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초기에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모방하여 개발하였듯이 6차 개편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급 1’에서의 삼입교재(‘입말과 입말체’), ‘중급 2’에서의 삼입교재(‘억양의 요소’), 활동(런습문제) 중 ‘입말체에 어울리게 고치기’ 등을 통해 문어와 구어교육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이처럼 조선어를 문어와 구어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교육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강남옥(2014)와 김한근(2022)에서는 북한의 외국인 대상 조선어교육은 한국어교육과 같이 ‘이해’와 ‘표현’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문어와 구어의 차원에서 기능 교육을 구분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¹⁴⁾

14) 강남옥(2014)는 ‘회화’, ‘강독’ 교과서에서 각각 구어와 문어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김한근(2022)는 ‘회화’, ‘강독’ 교과목에서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문학 작품을 활용한 민족성과 애국심 함양

둘째, 다양한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민족성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시조와 고전소설과 같은 전통 문학 장르와 시, 소설을 통해 동포들에게 민족성을 함양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급 1’의 6단원(견우와 직녀), 8단원(우리는 하나), 17단원(홍부와 놀부), ‘중급 2’의 1단원(온달과 평강공주), 11단원(시조 6수), 14단원(토끼전), ‘중급 3’의 2단원(단군신화)이 대표적인 예이다. 추가적으로 ‘중급 3’의 14단원(박돌의 죽음)은 작가 박서해의 1925년 작으로 간도 이주민의 빈궁한 삶을 표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계급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에 해당한다. ‘박돌의 죽음’이 문학사적으로 신경향과 문학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엇보다 계급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작가 최서해는 대표적인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 작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수록 작품을 통해 중급학교 학생들에게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의 관점이 아닌 하나의 조국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민족성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급 1’의 ‘우리는 하나’에는 남과 북이 아닌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본래 하나의 나라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중급 1’의 16단원(눈물의 모자)에서는 홍수의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위하여 모금을 하는 내용을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급 3’의 5단원(현실은 소설보다)에서는 조선학교 학생에게 조롱하고 차별하는 일본 사람에게 훈계하는 상황을 수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공의 대화를 빌려 이들을 계몽하는 방식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애국심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급 2’의 2단원(민족의 자랑이 깃든 곳에서)에서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삼국시대 당시 일본과 교류하며 만들어진 문화재들을 활용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고구려인 담징이 그린 아미타정토도(阿彌陀淨土圖), 고구려 무덤 벽화에 그려진 옷차림과 유사한 다카마쓰즈카고분(高松塚)古墳 벽화,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백제 기술자들을 데려다 지은 절인 호류지(法隆寺), 백제 장인이 만들었다는 백제관음보살상, 백제왕이 일본왕에게 하사하였다는 칠지도, 백제의 후손이 세운 법흥사(法興寺), 신라인이 쇼토쿠태자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일본 국보 1호 미륵보살반가사유상(彌勒菩薩半跏思惟像) 등의 문화재를 소개하여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있다. 다만 단순히 자문화중심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의 현실에 맞게 해당 문화재가 가진 일본 내에서의 가치와 의미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이처럼 교과서를 통해 이러한 민족성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함은 민족성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서 6차 개편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도 관련이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점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과 같은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조가 조선학교 교과서 개편에도 반영되어 통일지향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6.15남북공동선언과 관련된 내용은 ‘중급 2’의 8단원(느낌글을 써보자)의 본보기에서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¹⁶⁾

15) 실제 2019년 3월 5일 국영방송 KBS에서 방영된 <안창립도 다닌 일본 조선학교를 아십니까?>에서 교토 도시사대학교(同志社大學) 사회학부 교수인 ‘이타가키 류타(板恒龍太)’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9년 당시에는 조선학교에서 2003년도에 개발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서들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분위기가 반영된 통일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6) ‘중급 2’ 8단원에 본보기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 6〉 교과서에 언급된 민족성 및 애국심 함양 내용

교과서	단원 (단원명)	내용
중급 1	8 (우리는 하나)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피줄도 하나 하나 이땅도 하나 둘이 되면 못살 하나 긴긴 세월 눈물로 아픈상처 씻으며 통일의 환희가 파도쳐 설레이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
	16 (눈물의 모자)	주인원 심부름으로 굶은 철물을 한짐 메고 自轉車를 타고 종로길을 가던 상철이는 큰길에서 자기보다 더 어린 소학생들이 두사람씩 세사람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집집에 들어가 水災同胞들을 위해 慰問品을 애걸해 모으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급 3	5 (현실은 소설보다)	-〈乙巳五條約〉으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겪어온 피눈물나는 역사를, 〈創氏改名〉으로 제 성과 이름마저 가질수 없었고 〈조선교육령〉으로 그러럽 사랑해오던 모국어, 조선말까지 빼앗겼던 受難의 역사를... -당신들은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허다한 이 사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화를 떠드는 일본인데 자기 사회에 있는 재일조선인문제는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3) 문화를 활용한 민족성과 애국심 함양

셋째로 ‘중급 1’의 13단원(설명절), ‘중급 2’의 4단원(즐거운 명절 수리날), ‘중급 3’의 7단원(한가위날과 성묘)와 같은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여 민족성을 함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문학 작품과 전통 문화, 문화재 등을 활용하여 재일동포로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중급 1’의 7단원(나의 학교는 조선학교), ‘중급 2’의 7단원(아직은 사람도 없는 역에), ‘중급 3’의 15단원(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을 통해서는 현재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으로써 특정 기관의 성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함양시키고 있다.

〈표 7〉 교과서에 언급된 조선학교 관련 부분

교과서	단원 (단원명)	내용
중급 1	7 (나의 학교는 조선학교)	-만일 내가 <한국>학교에 다녔더라면 오늘과 같은 體驗이나 느낌을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보면 나를 비록 멀고 힘이 들지만 조선학교로 떠밀어준 부모님들이 정말 고마웠다. -이제는 동무들이 왜 것처럼 먼곳에 있는 조선학교에 다니는가고 물으면 나는 자랑을 담아 대답하련다. <조선학교는 우리 말과 우리 민족을 알게 해주기때문이야.>라고.
중급 2	7 (아직은 사람도 없는 역에)	그래도 네 발걸음 오늘도 땀땀이 우리 학교로 향하는것은 그 작은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조선학생된 영예나 민족의 긍지나 (중략) 아, 세상에 류레없는 민족교육의 아침은 오늘도 이렇게 시작된다
중급 3	15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학교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니혼노 각고오요리 이이데스 하고 서투른 조선말로 우리도 앞으로 일본 학교보다 몇배나 더 큰 집지울수 있잖느냐고 되려 이 눈물많은 선생을 달래고 그리고 또 오늘도 가방메고 씩씩하게 이 학교를 찾아오는구나 -조국 떠나 수만리 지역에서 나서자란 너희들에게 다시 조국을 배우게 하는 단 하나의 우리 학교다

이처럼 중급학교 교과서에서는 전통 문학 장르와 시, 소설, 명절 문화, 일본의 문화재와 유적지, 조선학교의 성격 등을 통해 동포들에게 민족성과 애국심,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고취시키고 있으나 고급학교 교과서에서는 재일동포들의 현실과 정체성을 다루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만 민족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고급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최서해의 ‘탈출기’ 등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는 내용의 작품을 수록하여 중급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조국의 관점에서 애국심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중급학교 교과서에서 민족성, 애국심, 정체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교과서 6차 개편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즉 1993년부터 1995년까지 5차 개편이 이루어진 후 발행된 국어 교과서는 재일동포들이 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가정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6차 개편 이후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며 동포 사회를 계승시키기 위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조국은 북한이라는 점과 비록 교육과정 개편을 거치며 상당 부분 사라지긴 하였으나 북한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 주체사상과 관련된 내용까지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급 1’의 3단원(‘두만강을 건느며’)와 ‘중급 3’의 3단원(고향의 모습), 11단원(금강산을 찾아서)에서는 구체적인 북한의 명소만을 다루고 있으며 ‘중급 2’의 9단원(보금자리)에서는 지진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김정일이 총련을 통해 금전적인 지원을 한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급 3’의 12단원(날이 밝는다)에서는 김정일의 기행을 다루며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서도 ‘중급 3’의 3단원(고향의 모습)에서의 ‘인민대학습당’, 평양 거리와 같은 북한 사회 모습을 표현하여 학습자들의 조국은 북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다. 고급학교 교과서에서도 북한이 조국이라는 점과 재일동포를 북한의 해외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8〉 교과서에 언급된 북한 관련 부분

교과서	단원 (단원명)	내용
중급 1	3 (두만강을 건느며)	이 강을 건너서면 남의 나라 땅 돌아보면 내 나라 그리운 내 고향 언제 오나 묻지 말아 다시올 날 있으리니 잘있거라 내 나라 그리운 내 고향
중급2	9 (보급자리)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작은 공화국기발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오사카의 조청원들이 지원물자를 가져왔고 다시 찾아온 선생님은 일본전국의 우리 학교 동무들이 慰問편지와 위문품들을 보내오고있다고 전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지진피해동포들의 처지를 아시고 무척 가슴아파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위문 전문과 함께 위문금 100만딸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중급3	3 (고향의 모습)	-김일성광장에서 군중대회가 열리고있었다. 드디어 着工의 첫삽을 뎌 서해갑문건설장에 지원물자를 싣고가는 자동차들을 환송하는 모임이었다. 나는 복이 있는 처녀였다. 내가 근무를 서는 때에 그들이 여기를 지나가게 된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 차에 무겁게 실리우는 부재로써 동무를 사랑하고 평양을 사랑하고 나의 조국을 사랑하겠소.
	11 (금강산을 찾아서)	-정말 금강산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모아안은 천하제일명산이다.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가지고있는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우리 비록 이역땅에 살아도 언제나 조국을 안고 살리라, 錦繡江山 우리 조국을!
	12 (날이 밝는다)	-등잔불 깜박이는 나직한 방에서 장군님께서서는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다. -간고한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김일성장군님께서 위대한 구상을 하신다. -등에 걸치신 외투깃을 추켜올리시며 장군님께서 밀영의 창문을 여실 때 아, 날이 밝는다. 백두산밀림에서 조국의 태양이 솟는다!

또한 중급학교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전쟁과 분단 상황과 관련된 내용까지 북한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¹⁷⁾ 그러나

17) 송재목(2012)에서는 한국전쟁과 분단 상황과 관련된 작품인 ‘조선은 싸운다’, ‘기다리는

이러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조선학교가 총련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무엇보다 교육 내용으로 주체사상,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성국의 교육 내용을 가르쳐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치부하거나 조선학교 자체가 북한의 사상 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식의 판단을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교육 항목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6차 이전 시기에 개편된 교과서에서는 미국, 남한과 같은 국가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에 비해 6차 개편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교과서 6차 개편 이전 시기의 적대 감정 수록 내용

교과서	단원 (단원명)	내용
중급2 (64년)	6 (철천지 원쑤)	<공산주의 위협>이니 하면서 더 많은 殺人武器를 남의 나라에 끌어들이기에 급급해 하는 미제의 낯강도 행위가 말로 도적놈의 심보와 말투의 가장 뚜렷한 본보기라 할 것이다. (중략)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를 우리 조국 땅에서 당장 몰아 내자!
중급1 (78년)	25 (싸이렌)	미제놈들의 짐승같은 만행을 반대하는 투쟁대렬을 따라 시청앞에 이른 창혁이는 놀란듯이 흠칫 멈춰섰다.
중급3 (84년)	20 (준엄한 심판)	괴뢰서울지방법원의 2층 殺人裁判庭에서는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종태선생님에 대한 남조선괴뢰악당놈들의 <공판>놀음이 벌어졌다.

즉 조선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내용은 민족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학습자들 역시 한민족, 조선적(朝鮮籍)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있을 뿐 이외의 의도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¹⁸⁾ 이처럼 정치적 성향

어머니'에서 각각 미군의 폭격에 맞서 싸우는 북한을 묘사하고 있으며 주인공 아버지가 북한군으로 참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내용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관점에서 전쟁과 분단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

18) 실제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와 면담한 결과 조국을 남한과 북한으로 단순하게

과 이념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여러 차례 교육과정의 개편을 거치며 줄어드는 경향은 고급학교 국어 교과서의 변천을 다룬 송재목(201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⁹⁾ 결과적으로 중급학교와 고급학교 모두 정치적, 이념적 성향, 북한 최고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추가적으로 1993년에 출간된 고급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외국 작품(‘우제니 그랑데’, ‘리어왕’, ‘부활’ 등)이 수록되어 있으나 2003년 고급학교 및 중급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외국 작품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2003년 이전에 출간된 중급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역사적으로 조선학교는 해방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정주하며 살아가게 된 이들을 위한 민족교육기관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비록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총련의 산하기관으로 과거에는 주체사상, 북한 최고지도자 숭배와 같은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시기를 거듭하며 이러한 점차 정치색은 옅어지고 자생적인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학교는 독자적인 교육과정과 초급부부터 중급부, 고급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편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학교의 성격과 사용 중인 교과서

이분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한반도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기 위하여 조선학교에 진학하였을 뿐 어떠한 정치적인 요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면담 결과와 면담 대상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다루지는 않는다.

- 19) 송재목(2012)에서는 1993년에 개발된 고급학교 국어 교과서와 2003년도에 개발된 고급학교 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을 때 정치, 사상적인 편향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내용 역시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들은 남한, 북한, 일본과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6차 개편 당시 출간된 중급학교 국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구성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급학교 국어 교과서는 여타의 교과서와 동일하게 북한의 (평양)문화어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은 언어 기능 학습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본문 및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본문으로 수록된 작품의 장르에서는 ‘원리극’ 장르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학습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중급학교에서 최대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6차 개편 이후 출간된 교과서는 개편 기조에 따라 민족성을 배양하고 고취시키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전통 문학 장르와 시, 소설, 명절 문화, 일본의 문화재와 유적지를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조까지 반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학교의 성격을 나타내는 작품까지 활용하여 재일동포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중급학교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향후에는 북한의 국어 교과서와도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민단계 한국학교 및 일본 학교의 민족학급에서도 한국어(조선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와도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처럼 조선학교는 정치적, 역사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일본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차별의 역사도 근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정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해방 직후에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생활고에 놓여 있던 그들에게 북한 정부가 경제적인 원조를 하였다면 이제는 한민족의 관점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점으로 계승어로서 한국어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통일 이후의 한국어(국어)교육을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남옥,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한국언어문화학』 제11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1~25면.
- 강정희,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조사-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86집, 한국어문화회, 2004, 1~29면.
- 김덕룡·박삼석,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 학우서방, 1987.
- 김세덕, 「일본 간사이지방 민족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고찰」, 『한국어교육연구』 제9집, 일본한국어교육학회, 2019, 23~38면.
- 김한근, 「남북한 언어교육 동질성 회복을 위한 김일성종합대학교의 외국어로서 조선어교육 운영 사례 분석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9권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37~71면.
- _____, 「북한에서의 외국어로서 조선어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김한근·시오야 모에·유인박·박나래·한승규, 「An Analysis on North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Overseas Koreans in DPRK-Focusing on Our Life and Pyeongyang Munhwao」, 『인문사회과학연구』 제66권 3호, 인문사회과학연구, 2023, 81~106면.
- 송기찬, 「정체성의 장치에서 정체성의 관리로-조선학교의 민족교육과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한국문화인류학』 제51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207~278면.
- 송재목, 「재일동포 총련 조선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국어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 145~178면.
- _____, 「총련 조선고급학교 국어교과서의 특성-2003년도 개정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8권 3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2, 193~225면.
- 오새내·최창원, 「재일동포 청년들의 한국어 언어 의식 연구-자기 고백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63집, 겨레어문학회, 2019, 249~275면.
- 윤송아, 「총련 결성과 재일조선인 민족교육-박종상의 ‘봄비’와 량우직의 ‘서곡’에 나타난 총련 결성 시기 ‘조선학교’의 재현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57집, 비교문화연구소, 2019, 311~337면.
- 이동준·장미라, 「민족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재일동포 성인의 인식 조사-규슈·오키나와 지역 민단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2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9, 191~226면.
- 이순연, 「재일코리안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 연구-언어 사용 상황 및 언어 정체성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제68집, 이중언어학회, 2017, 119~139면.
- 정병호, 「민족 경계와 정체성의 재생산-재일 조선학교의 모색과 실험-」, 『비교문화연구』 제9권 2호, 비교문화연구소, 2003, 125~155면.
- 정진성, 「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 『일본비평』 제9권 1호, 일본연구소, 2017, 208~241면.
- ITO HIROKO, 「조선학교 선택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경계선」, 『재외한인연구』 제46집, 재외한인학회, 2018, 85~113면.

Abstract

An Analytical Research o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Chosun Schools in Japan

- 6th Reorganization(2003) Focusing on
Intermediate School Textbook-

Kim, hangeun · Shioya, moe · Liu, renb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n language textbooks targeting North Korean diaspora in Japan. We review previous studies analyz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used in Chosun schools and examine how these textbooks have developed over time. We select the 2003 and 2004 (6th edition)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intermediate Chosun schools as the subjects of our research and conduct an analysis based on both their external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se textbooks, same with 5th edition, continue to emphasize oral education, such as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by utilizing various means and methods to foster a sense of ethnicity and patriotism and sustain it. Additionally, these textbooks actively incorporate content related to culture to nurture a sense of ethnicity, affirm the identity of being Korean among the North Korean diaspora, and maintain it. As these textbooks are operated with the support of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re is a noticeable decrease in content in admiration to North Korean leadership, but they still contain content related to Juche ideology and uphold certain aspects of it.

【Key words】 Chosun schools, textbooks, Korean diaspora in Japan, Korean language education, Chongryon

논문 투고: 2024년 2월 28일, 심사 완료: 4월 12일, 게재 확정: 4월 14일.